

## Doxylamine 과량복용에 의한 급성 신부전증

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

조영일 · 송종오 · 이종호 · 박정환

**목적** : 독시라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면제로서, 과량 복용하면 항콜린 증상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증상과 경련, 횡문근융해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, 드물지만 급성신부전 (ARF)의 합병도 보고되었다. 이에 연구자들은 독시라민 과량복용 환자에서 ARF의 발생빈도와 임상특징을 조사하였다.

**방법** : 2000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본원에 내원한 독시라민 과량 복용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. 모든 환자에서 내원 당시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임상증상, 요검사, BUN/Cr, CK 농도, 혈액 및 소변 myoglobin 농도 등을 검사하였다.

**결과** : 횡문근융해증은 14명 (51.8%)에서 발생하였고, 이중 3명 (독시라민 과량복용 환자의 11.1%, 횡문근융해증 환자의 23.0%)에서는 ARF가 발생하였다. 횡문근융해증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에서는 ARF의 발생이 없었다. ARF가 발생한 환자군, ARF를 동반하지 않은 횡문근융해증 환자군 및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군에서 독시라민 복용량은 각각  $115.2 \pm 36.3$  mg/kg,  $30.1 \pm 3.6$  mg/kg 및  $18.4 \pm 2.2$  mg/kg, 최대 CK 농도는 각각  $156,009 \pm 7,009$  IU/L,  $13,633 \pm 5,972$  IU/L 및  $280 \pm 60$  IU/L, 그리고 최대 혈중 myoglobin 농도는 각각  $12,000 \pm 9,000$  ng/mL,  $1,802 \pm 753$  ng/mL 및  $103 \pm 34$  ng/mL였다. 독시라민 복용량 ( $p=0.0012$ ), CK 농도 ( $p=0.0002$ ), myoglobin 농도 ( $p<0.05$ )는 모두 각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. 그러나, 독시라민 복용량과 최대 CK 농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( $p=0.0928$ ). 횡문근융해증은 독시라민 복용량이 20 mg/kg 이상인 환자에서는 85.7%, 그 미만인 환자에서는 15.3%에서 발생하였다. ARF는 독시라민 복용량이 40 mg/kg 이상인 환자의 60.0%에서 합병된 반면, 복용량이 40 mg/kg 미만인 환자에서는 ARF가 합병되지 않았다. ARF 환자중 2명은 혈액투석치료가 필요하였고,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나머지 1명은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였으며, 모두 신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.

**결론** : 횡문근융해증은 독시라민 과다복용에 의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독시라민의 복용량이 많으면 발생위험이 증가한다. 특히, 고용량 (>40 mg/kg)을 복용한 경우에는 횡문근융해증과 함께 ARF가 드물지 않게 합병되며, 투석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. 따라서, 고용량의 독시라민을 음독한 환자에서는 횡문근융해증에 따른 ARF의 합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.